

## “전염병 확산 방지 위해 재택 근무 기간 늘린다” SNK인터랙티브, 코로나19 확산 방지 전직원 재택근무 연장

- IP라이선스 사업 특성상 게임 출시에는 큰 영향 없어



SNK인터랙티브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재택근무 연장을 결정한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지난 27일부터 '1주일 재택근무'에 선제적으로 들어갔던 SNK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서 '3월 10일까지 연장'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SNK는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IP(지적재산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게임 개발 및 서비스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분석했다.

SNK관계자에 따르면 “더 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시행하게 됐다”며 “재택근무 기간에도 정상적인 업무는 진행이 될 예정이며, 특히 IP라이선스 사업 특성상 신규게임 오픈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SNK는 중국 온라인 게임 선두 업체인 창유(Changyou.com)사가 최근 국내 출시를 예고한 수집형 모바일 카드게임 ‘권훤각성’에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사무라이 쇼다운’, ‘월화의 검사’ IP를 제공하면서 이목을 끌었다.<끝>

### <자료 문의>

SNK인터랙티브 홍보담당 전성국 대리 (010-5477-0979 / [skchun@snkcorp.co.kr](mailto:skchun@snkcorp.co.kr))

### <SNK 인터랙티브 소개>

SNK는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게임회사로 일찍이 전 세계에 수많은 게임을 제공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국내에서는 올 상반기 증시에서 화제를 모은 공모기업 중 하나로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아랑전설’ ‘메탈슬러그’ ‘사무라이 스피리츠(사무라이 쇼다운)’ 등 1990년대를 풍미한 인기 게임의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흥행한 IP들 외에도 콘솔과 모바일 게임을 지속해서 개발 및 판매하며 성장 동력으로 앞세우고 있으며, 신규 IP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